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집중단속으로 불법 수입제품 594억원 상당 적발

지난 35일간 어린이용품 등 안전검사 회피,
밀수입, 원산지단속에 중점



관세청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27일부터 35일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163건, 594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선물용품·가정용품의 밀수입', '안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위조상품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반입'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233억 원, 지재권위반이 130억 원, 밀수입이 117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03억 원이고, 단속 품목은 불량먹거리 186억 원, 어린이용품 130억 원, 유아용품 114억 원, 선물용품 89억 원, 효도용품이 75억 원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Arch Wire) 등 치과재료 115,000점, 시가 2억 원 상당을 견본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회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안전검사 회피)했고, 판매목적의 조립식 레고 완구 1억 원 상당을 자가소비(自家消費)용으로 위장하여 221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 원 상당을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입했다.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향료 2천만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1,290개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했고, 1개당 23불인 중국산 기저귀 132,369개를 개당 17불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해,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의 달 특별단속 현황

유형별			품목별			
(단위: 건, 백만 원)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구 분	건수	금액	비 고
관세포탈 등	29	23,380	불량먹거리등	33	18,579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약
지재권위반	24	13,026	어린이용품	37	13,048	장난감, 게임기
밀수입	42	11,731	유아용품	7	11,418	기저귀, 화장품
원산지표시	49	10,256	선물용품	50	8,900	문구류, 의류·신발
부정수입	8	279	효도용품	36	7,515	치과재료, 전지담배, 마사지기
기 타	11	788	합 계	163	59,460	
합 계	163	59,460				

적발품목 사진

위조 아이언맨, 스타워즈 등 캐릭터 장난감



교정용 와이어 등 치과재료



원산지표시 위반 의료기기(부적정·미표시)



발마사지기(부적정 표시)



족욕기(부적정 표시)

※ 소비자 식별이 어려운 밀바닥에 원산지 표시

【 문의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042-481-7818)